



초기 그리스도교
에큐메니컬 7대 공의회
| 그 역사와 신학 |
레오 도널드 데이비스 · 이기영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제목	초기 그리스도교 에큐메니컬 7대 공의회: 그 역사와 신학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대한기독교서회
발행일	2018. 8. 20.
저자	레오 도널드 데이비스 이기영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504
ISBN 또는 ISSN	978-8951119385

내용 요약

이 책은 초기 기독교의 7대 공의회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연구이다. 초기 기독교의 7대 공의회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로 시작하여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 에페소 공의회(431), 칼케돈 공의회(451),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되기 이전에 개최된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가리킨다. 저자는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7대 공의회만을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초기 7대 공의회에 대한 역사와 신학은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언급한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서 교회 탄생의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개괄하고 있다. 2장-8장에서는 각각 7개 공의회를 다룬다. 각 장은 각 공의회 역사적 배경과, 공의회의 의제인 신학적·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한다. 7대 공의회는 공의회 소집 당시 논쟁이 된 신학적 입장의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고 판정했다고 평가된다. 9장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기독교의 세 그룹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의회의 기준과 차이에 대해 언급한다. 로마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공의회는 교황이 소집하고, 주교들과 지명된 사람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초기 7대 공의회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황제가 소집했으며, 교황의 특사들이 투표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공의회의 결정을 교황이 따라야 하기도 했다. 정교회의 기준에 따르면 5대 교구의 총대주교가 참석해야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성립된다. 이처럼 그룹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가톨릭 사제인 저자는 그 간극을 좁혀서 세 그룹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 초기 7대 공의회를 기독교 신앙의 공동의 기둥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한다.